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and Parents'
Emotion Expressiveness and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이혜련
교수 최보가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Lecturer : Lee, Hae Ryun

Professor : Choi, Bo G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V. 결론 및 제언 |
| III. 결과 및 해석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and parents' emotion expressiveness and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Subjects were ninety 3- to 5-year 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Parents' emotion socialization was measured by PACES developed by Saarni(1989) and FEQ developed by Harberstadt(1986). And preschoolers' identification of basic emotional expressions and expression of their own feelings and others' feelings in various situations were measured. Results revealed that 5-year-old children understood emotion better than 3-year-old children, and mother's positive emotion expression influenced children's emotion understanding.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recent research showing that parents emotion socialization may be important for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주제어(Key Words):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부모의 정서표현성(parents' emotion expressiveness), 부모의 아동정서 수용태도(parent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I. 서론

정서는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정서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며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정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표현할 수 있고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과 정서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Denham, Zoller, Couchoud, 1994).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상태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상태에 접근하고 서로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게 하므로(Dunn, Bretherton, Munn, 1987)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Denham, Zoller, Couchoud, 1994).

정서적 경험의 일부는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받지만(Fox & Davidson, 1988), 많은 연구에서 정서적 평가나 표현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재된다는 것이 밝혀졌다(Lutz & White, 1986; Schieffelin & Ochs, 1986). 이러한 정서 사회화(emotion socialization)는 아동들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된다. 아동들은 일찍부터 가족들과 상호작용하며 특히, 초기 아동기동안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대상은 가족 중에서도 부모일 것이다. 물론 가족이 아동의 정서를 사회화하는 유일한 대행자(agent)는 아니지만, 아동의 정서이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Cassidy, Parke, Butkoysky, & Braungrat, 1992; Denham & Couchoud, 1990a; Denham et al., 1991; Garner, Robertson, & Smith,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Nixon, & Watson, 2001; Parke, 1994).

부모의 정서 사회화는 아동이 부모의 정서표현을 모방함으로써, 그리고 특정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진다(Wilson & Fotman, 1995; Garner, Robertson, & Smith, 1997에서 재인용; Denham et al., 1991; Denham, et al., 1994; McDowell,

& Parke, 2000; Saarni, 1989). 즉 부모는 자신의 정서 표현을 통해서 아동에게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자녀와의 정서관련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게 정서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부모는 아동의 정서에 반응함으로써 아동들이 타인의 정서를 지각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정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적절한 정도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행복이나 슬픔, 분노, 그리고 공포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Denham 등(199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실험실에서 자신의 정서를 자발적으로 표현한 경우 자녀의 정서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서와 관련된 가족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아동들은 정서단어(emotion word)의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정서와 정서표현의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언어(emotion language)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Dunn, Brown, Slokowski, Tesla, & Younblade, L., 1991)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정서적이라는 고정관념이 널리 알려져 있고(Fabes & Martin, 1991), 여성의 정서표현에 대해 남성의 정서표현보다 더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대체로 성사회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들에게 정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수용하는 정서유형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들(Cassidy, Parke, Butkoysky, & Braungrat, 1992; Garner, Robertson, & Smith, 1997; Fivush, Brotman, Buckner, & Goodman, 2000)에서 밝혀져 왔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 사회화에서 아동의 성차를 밝히지 못한 연구도 있다. Denham 등(1991)은 정서에 관한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대화빈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아동의 연령차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중심성이 약해지고 판단능력, 추론 능력, 그리고 정서단어를 인지하는 능력이 발달하므로(Denham, Zoller, Couchoud, 1994)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나이든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보다 정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했다(윤혜정, 1995; Cevantes, & Callanan, 1998; Denham & Couchoud, 1990a).

이러한 가족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 아버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Gamer, Robertson, & Smith, 1997). 이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정서이해에 있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정서표현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정서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정서와 기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준희, 1997; 하유미, 1998)나 연령차나 성차를 밝힌 연구(박미정, 2001; 윤혜정, 1995; 하유미, 1998)에 그치고 있다. 아동의 정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의 정서이해의 초기 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중요성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동의 정서 사회화 대행자로서 부모가 아동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령전기는 아동이 부모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부모의 영향이 큰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이 아동의 정서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들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정서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 정서에 대한 수용태도는 아동의 정서이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정서이해에 대한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구시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4곳에 취원중인 만 3, 4, 5세인 아동90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부모용 질문지

부모용 질문지는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와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먼저,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Harberstadt(1986)가 개발한 FEQ(Family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연구대상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는 40문항이었으나 예비조사후 요인분석을 통해 설명력이 현저히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두 요인(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대한 22개 문항을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긍정적 정서 표현성 요인은 17문항이고 부정적 정서 표현성 요인은 5문항으로서 긍정적 정서표현성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부모 모두 .87이었고 부정적 정서표현성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부, 모 각각 .75와 .67이었다.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aami(1989)가 개발한 PACES(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연령 및 기타 특성에 적합하도록 본 연구자가 변안한 후 일부문항을 수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아동의 성별	남	45(50)
	여	45(50)
아동의 연령	만3세	30(33.3)
	만4세	30(33.3)
	만5세	30(33.3)
아동의 형제자매	1명	17(18.9)
	2명	64(71.1)
	3명이상	9(10)
아버지의 연 령	30세이하	3(3.3)
	31-35	41(45.7)
	36-40	35(38.9)
	41이상	11(12.1)
어머니 연 령	30세이하	22(24.5)
	31-35	52(57.8)
	36-40	16(17.7)
아버지 학 령	중졸이하	1(1.1)
	고 졸	23(25.6)
	전문대졸, 대학중퇴	20(22.2)
	대 졸	38(42.2)
	대학원졸업 이상	8(8.9)
어머니 학 령	중졸이하	1(1.1)
	고 졸	36(40.0)
	전문대졸, 대학중퇴	24(26.7)
	대 졸	26(28.9)
	대학원졸업 이상	3(3.3)
가정의 월소득	100만원이하	4(4.4)
	100-200만원	33(36.7)
	201-300만원	21(23.4)
	300만원이상	32(35.5)
아버지 직 업	무 직	1(1.1)
	서비스직	3(3.3)
	판매직	26(28.9)
	사무직	24(26.7)
	관리직	16(16.7)
	전문직	9(10.0)
	기 타	12(13.3)
어머니 직 업	주 부	69(76.7)
	서비스직	4(4.4)
	판매직	3(3.3)
	사무직	7(7.8)
	전문직	4(4.4)
	기 타	3(3.3)

정·보완(예: 만화책을 그림책으로, 학교를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ACES는 자녀의 가설적인 정서표현행동에 대한 부모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척도이다. 이 척도는 아동이 분노, 행복, 호기심, 근심, 두려움, 그리고 혐오감을 표현할 때 부모의 일상적인 반응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1점은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4점은 매우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Saarni(1989)가 보고한 PACES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Cronbach α 가 .64였고 어머니의 경우 Cronbach α 가 .55였다.

2) 아동의 정서이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정서인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에 대해 아동의 정서인식(identification of emotion)과 정서표현, 그리고 정서조망수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카드와 정서상황을 나타내는 이야기 20가지에 대한 그림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림카드는 미술 전공자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 내용에 알맞게 흑백으로 그리게 하였고 아동면담시에는 그림카드와 이야기를 함께 제시하였다. 아동의 정서이해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누어 긍정적 정서는 행복점수를 사용하고, 부정적 정서는 슬픔, 분노, 두려움 점수를 합하여 그 평균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서인식은 4가지 얼굴표정에 대해 명명할 수 있는가(예: 슬픈 표정을 보여주며 이 아이기분이 어떨까?)와 지적할 수 있는가(예: 슬픈 표정을 보여줘)로 측정하였는데, 정답을 말하거나 지적한 경우 2점, 동일유형의 정서를 답한 경우 1점, 그리고 틀린 정서를 답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정서 표현과 정서조망수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총 20가지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먼저 아동자신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정서 각각에 대해 두가지 이야기를 선정하여 총 8가지 이야기의 그림카드를 이용하였다. 8가지 이야기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4가지 기본정서 각각을 주된 정서로 나타내는 이야기(예, 기쁨: 생일파티를 하는 상황, 슬픔: 아파서 놀러가지 못하는 상황, 두려움: 밤에 혼자 있는 상황, 분노: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을 친구가 망가뜨린 상황)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처리하고 아동에게 그림카드와 그림카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 해준 후 각 이야기에 해당하는 표정 카드를 지적하게 하였다. 아동의 반응은 아동이 정확한 정서를 지적한 경우 2점을, 동일한 유형의 정서를 지적한 경우(예: 정답인 슬픔에 대해 분노를 지적한 경우) 1점, 틀린 정서를 지적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가 즉, 정서조망수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Denham(1990a)이 사용한 정서조망수용면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Denham(1990a)은 아동의 정서조망수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정서에 대해 각각 두 가지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모호한 상황(예: 행복-슬픔: 어머니와 떨어져 어린이집에 가는 상황, 행복-분노: 크지만 귀여운 개를 만난 상황, 행복-두려움: 수영장에 놀러가서 혼자 풀에 들어간 상황, 슬픔-분노: 놀이터에 갔는데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 상황, 슬픔-두려움: 아끼는 애완 동물이 죽어 가는 상황, 분노-두려움: 친구들이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상황)을 각각 두 가지씩 설정하여 총 12가지 상황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nham(1990a)의 interview 내용을 우리 문화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먼저 부모용 질문지편에 12가지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일상적인 아동의 반응을 체크하게 하고, 아동면담시에는 어머니가 체크한 아동의 반응과 상반된 표정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 속 아동이 느끼는 정서를 답하게 하였다(예: 어머니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한 경우 아동에게 어린이집에 가면서 슬퍼하는 그림을 보여줌), 아동이 이야기속 주인공이 느낀 정서를 정확하게 답한 경우 1점, 틀린 정서를 답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고 12가지 이야기의 총점을 아동의 정서조망수용능력 점수로 사용하였다.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아와 여아를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3. 실험절차 및 자료분석

본 실험은 2002년 5월 2일부터 6월 1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아동편에 부모용 질문지를 미리 보내어서 회수된 아동에 한해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부모용 질문지는 250부를 배부한 후 회수된 113부의 질문지 중에서 부모의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아동면담시에 아동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 90부를 이용하였다. 면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내에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고, 각 아동에게 소요된 시간은 15분 이내였다. 처음에 아동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아동의 이름, 가족상황, 친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아동의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후에 본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백분율이 구해졌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정서이해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가 아동의 정서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pearson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이해

먼저, 아동의 정서이해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정서이해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의 차이검증은

〈표 2〉 아동의 정서이해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N=90)

정서이해의 하위요인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서인식	긍정적 정서인식	1.95(0.26)	0	2
	부정적 정서인식	1.58(0.28)	0	2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	1.72(0.59)	0	2
	부정적 정서표현	1.16(0.46)	0	2
정서조망수용		7.03(2.30)	0	11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이해의 하위요인중 부정적 정서인식, 부정적 정서표현,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망수용능력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인식에서 3, 4세 집단과 5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표현에서는 3세 집단과 5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표 3〉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 차이검증

정서이해의 하위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부정적 정서인식	2	1.27	.63	9.52***
부정적 정서표현	2	13.4	6.70	3.74*
정서조망수용	2	57.867	28.93	6.068**

*p<.05 **p<.01 ***p<.001

〈표 4〉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의 차이에 관한 사후검증

정서이해의 하위요인	연령	대상수	평균	Scheffé
부정적 정서인식	3세	30	1.46	A
	4세	30	1.54	A
	5세	30	.46	B
부정적 정서표현	3세	30	.98	A
	4세	30	1.13	AB
	5세	30	1.36	B
정서조망수용	3세	30	5.90	A
	4세	30	7.57	B
	5세	30	7.63	B

서조망수용능력은 3세 집단과 4, 5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 정서에 대한 수용태도가 아동의 정서이해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정서이해에 대한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의 영향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가 아동의 정서이해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가를

〈표 5〉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N=90)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3.71(0.49)	2.00	5.00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2.83(0.50)	2.00	4.00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3.69(0.44)	2.47	4.53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2.88(0.43)	1.00	4.00
아버지의 아동정서수용태도	2.43(0.31)	1.35	3.10
어머니의 아동정서수용태도	2.53(0.26)	1.80	3.00

〈표 6〉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부모의 아동정서수용태도와의 상관관계 (N=90)

	아동의 정서인식		아동의 정서표현		아동의 정서조망수용
	긍정적 정서인식	부정적 정서인식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01	-.03	.13	.10	.07
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00	.08	-.00	.07	.10
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25 *	.11	.24 *	.25 *	.07
모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06	-.06	-.22 *	-.03	-.04
부의 아동정서수용태도	-.09	.00	-.01	-.02	.00
모의 아동정서수용태도	-.09	-.07	-.15	-.11	-.22*

*p<.05 **p<.01

〈표 7〉 아동의 정서이해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요 인	R	R ²	F	F유의도	B	β	T값
아동의 긍정적 정서인식	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26	.066	6.27	.014	.30	.25	2.504*
	2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12	.10	6.40	.003	.74	.27	2.75**
아동의 긍정적 정서표현	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24	.05	5.40	.022	.64	.27	2.32*
	2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12	.10	6.40	.003	-.73	.27	-2.65**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	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25	.06	5.91	.017	.26	.10	2.43*

*p<.05 **p<.01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부모의 정서표현성, 아동의 정서에 대한 수용태도, 아동의 정서이해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의하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긍정적 정서인식,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표현이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가 아동의 정서조망수용능력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정서이해에 대한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 정서 수용태도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의하면 아동의 긍정적 정서인식에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25$, $p<.05$)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27$, $p<.01$)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beta=.27$, $p<.01$)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10$, $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긍정적 정서인식과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을 더 잘 하며,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할수록 아동이 긍정적 정서표현이 더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정서이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인식과 부정적 정서표현은 3세아보다 5세아가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아동들의 정서이해에 있어서 연령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들(Cevantes & Callanan, 1998; Denham & Couchoud, 1990a; Denham & Couchoud, 1990b; Denham, Zoller, & Couchoud, 1994)과 일치한다. 특히 긍정적인 정서인식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동들이 슬픔 정서보다 행복 정서를 더 쉽게 이해한다(Denham & Couchoud, 1990a)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아동들이 긍정적 정서는 다소 빨리 이해하고 부정적 정서의 인식이나 표현은 그보다 다소 늦게 발달하지만, 대체로 만5세 정도의 연령이 되면 기본 정서인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정서이해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이해에 있어서 아동의 성차가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윤혜정, 1995; Denham et al., 1994; Dunn et al., 1991)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이 대부분 한 자녀 내지 두 자녀가정으로 자녀수가 적고,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대체로 중류층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이므로 남아와 여아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최근에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의 경우에도 정서발달이 또래관계나 아동의 행동장애에까지 영향을 친다는 연구들(Fabes et al., 1999; Garner et al., 1997; Garner et al., 1994; McDowell & Parke, 2000)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정서이해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난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관찰한 연구가 많으므로 본 연구와의 연구방법상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즉 관찰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은 아동들이 부모와의

대화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정서를 어느 정도 숨길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자와 함께 면담을 실시했기 때문에 아동이 좀더 솔직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부모의 정서 표현성이나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에 있어서 아동의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부모의 정서표현이나 아동정서표현에 대한 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 수준에서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Gamer et al., 199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 대상이 자녀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므로 실제로는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정서 표현 정도가 다르지만 부모가 이 차이를 지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Gamer et al., 1997).

셋째, 아동의 정서이해에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에 대한 수용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긍정적 정서인식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긍정적 정서표현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이 긍정적 정서인식을 더 잘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할수록 아동이 긍정적 정서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Gamer, Robertson, & Smith, 1997, Cassidy et al., 1992)이나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 이해를 방해한다는 선행연구(Denham et al., 1994)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

모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아동들로 하여금 긍정적 정서를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arner, Robertson, & Smith, 1997). 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긍정적 정서표현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표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평소에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아동으로 하여금 아동 자신이 화가 날 때나 두려운 감정이 생길 때, 또는 슬플 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도 부모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여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이 아동의 정서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녀양육의 주책임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정서표현성이나 아동정서 수용태도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정서이해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만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대상의 부모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경제적인 책임을 맡고 어머니는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르고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어머니에 비하여 매우 적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본 연구에는 90명의 학령전 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좀더 많은 수의 다양한 계층의 아동들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림카드를 사용한 면담을 통해 아동의 정서를 알아보았으나 피켓을 이용한 접근법이나 관찰연구 등 좀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정서 수용태도에 대해서만 살펴해보았으나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좀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아동의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준희(1997). 아동의 정서이해, 기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1995). 아동의 정서이해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유미(1998). 아동의 성, 초기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ervantes, C. A., Callanan, M. A. (1998). Labels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88-98.
- Denham, S. A., Couchoud, E. (1990a). Young preschoolers' ability to identify emotions in equivocal situations. *Child Study Journal*, 20(3), 153-170.
- Denham, S. A., Couchoud, E. (1990b). Young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Study Journal*, 20(3), 171-192.
- Denham, S. A and others (1991). Socialization of

- emotion: Pathway to preschoolers' affect regulation and emotion knowledge? Unpublished Manuscript(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7-253).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nn, J., Brotherton, I., Munn, P. (1987). Conversations about feeling states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132-139.
- Dunn, J., Brown, J., Slokowski, C., Tesla, C., & Younblade, L. (1991).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feelings and beliefs: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antecedents. *Child Development, 62*, 1352-1366.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Fabes, R. A. & Martin, C. L.(1991). Gender and age stereotypes of emoti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532-540.
- Fivush, R., Brotman, M. A., Buckner, B. J., & Goodman, S. H. (2000).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emotion narratives. *Sex Roles, 42*(3/4), 233-253.
- Fox, N. A. & Davidson, R. J (1998). Patterns of Brain Electrical Activity during Facial Signs of Emotion in 10-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30-236.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Garner, P. W., Robertson, S., & Smith, G. (1997).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with peers: the roles of gender and emotion socialization. *Sex Roles, 36*(11/12), 675-691.
- Lutz, C., & White, G. M. (1986). The anthropology of emotion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5*, 405-436.
- McDowell, D. J. & Parke, R. D. (2000). Differential knowledge of display rules for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fluences from parents, influences on peers. *Social Development, 9*(4), 415-432.
- Nixon, C. L. & Watson, A. C (2001). Family experiences and early emotion understanding. *Merrill-Palmer Quarterly, 47*(2), 300-322.
- Parke, R. D. (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problems: A commentary on peer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57-169.
- Saarni, C. (198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PACES). Unpublished Manuscript, Sonoma State University(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7-301).
- Schieffelin, B. B., & Ochs, E. (1986). Language socializ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5*, 163-191.